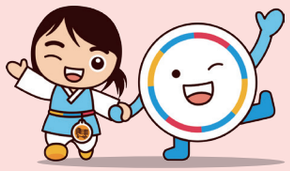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203-08
ISSN 2005-8535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은 청렴 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2024년 『**국민권익**』이 책과 함께 모바일 웹진으로도 새롭게 찾아갑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모바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봄을 기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Vol.79 국민권익위원회

ACRC NEWSLETTER 2023
Vol. 79
WINTE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국민권익

행정심판을 쉽게 도와주는
EASY 행정심판

ACRC NEWSLETTER 2023
Vol. 79
WINTER

CONTENTS

발행일 2023년 12월 26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정승윤
편집인 임규홍
정부간행물 발간번호
11-1140100-000203-08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68
팩스 044-200-7911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www.acrc.go.kr
blog.naver.com/loveacrc
twiter.com/loveacrc
www.facebook/loveacrc
www.instagram.com/acrc0229

유익한 권익

04 권익 현장
- 87년 된 원효가도교, '안전사고', '교통혼잡'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 '국민생각함 활동 우수자 간담회 및 시상식' 개최
-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10 정책 공작소
EASY(이지)행정심판 도입과 행정심판 통합

16 빅데이터 窓
2023년 11월 국민의 목소리

20 친절한 권익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신청, 이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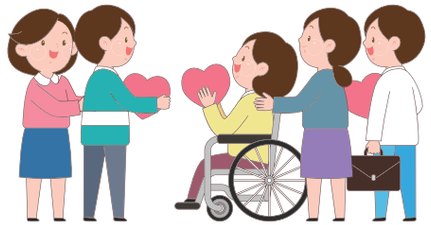
22 권익 키워드
11월의 관심키워드 : 아동 학대

24 ACRC 뉴스
10년간 문 닫혔던 삼척시 '호산항 낚시터' 개방 외

생활속 권익

28 고충 해결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다

30 알려드립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34 카툰
행정심판으로 권익을 구제받으세요!

공감의 권익

36 사람과 공감
7분, 25kg, 안녕을 향한 소명 의식 철원소방서 박자혁 소방장

40 찰나의 순간
한겨울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흩날리는 경남 통영

46 휴먼+트렌드
Y2K, MZ세대를 열광시키다

50 찾아가는 권익
일상에서 시작하는 나눔, 나와 너를 위한 행복이자 권리

52 이야기가 있는 레시피
깊은 밤 꿀잠 자는 비결

56 독자의 소리
퀴즈 당첨자

87년 된 원효가도교, ‘안전사고’, ‘교통혼잡’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시 하부도로 확장, 대체 보행로 조성

국가철도공단은 1936년 가설된 노후 철교인 원효가도교를 콘크리트로 전면 개량하는 시설물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원효가도교의 하부도로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원효가도교의 하부도로를 확장하고 대체 보행로를 개설해 교통정체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을 끌어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3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상습 정체 구간인 용산 원효가도교 하부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이에 따라 사라지는 보행로의 대체 보행통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원효가도교는 1936년 가설된 노후 철교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연결하며 하루 열차운행 횟수가 940회에 이르는 국가 중요 철도시설로 국가철도공단은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노후된 철골 교량을 콘크리트로 전면 개량하는 시설물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원효가도교 밑 왕복 4차선 도로가 서울역이나 원효대교 방향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교통정체와 꼬리물기 등 교통혼잡이 상당하다”며 “오랜 세월 철도교량으로 인해 하부도로 확장이 어려워 상습 교통정체를 겪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량 개량공사와 병행해 하부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약 50개월이 소요되는 개량공사 기간 중 약 39개월 동안 하부도로 4차로 중 2차로가 통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공사는 중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7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쟁점이었던 하부도로 확장 및 대체 보행통로 조성 부담 주체, 비용 분담 비율 문제 등을 조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원효가도교 기둥으로 인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서울역 방향 하부도로를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기로 했고 또 도로 확장에 따라 사라지는 보행자 통로의 대체 통로를 인근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기간 내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안이 시행되면 87년 전 건설된 경부선 원효가도교의 하부도로를 확장하고 대체 보행로를 개설해 교통정체 등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87년 된 원효가도교 일대 교통혼잡과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중단됐던 원효가도교 개량공사도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함 활동 우수자 간담회 및 시상식’ 개최

올해 신설된 시니어 부문 등에서 244건의 다양한 아이디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11월 28일 시상식을 열었다. 특히 올해는 시니어 부문을 신설했는데 그 결과 모두 244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이날은 또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 국민·기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어 우수 모니터단 수상자를 포함한 13팀이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11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동시에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수상자와 지난 1년간의 국민생각함 안건 중 우수 안건 선정자에 대해 시상식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국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부문, 청년 부문, 시니어 부문으로 나누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일선에서 은퇴했지만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시니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시니어 부문을 신설했다. 그 결과 총 24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작을 결정했다.

청년 부문에서는 ‘아청이공즈’ 팀이 제안한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방안’이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지난 4월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확대, 사후 서비스 연결, 인식개선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청소년 부문은 부산 남산초등학교 ‘사계절’ 팀이 센서 등을 이용한 고무 차단기를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1위에 선정됐다.

시니어 부문에서는 치매 등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 대상의 금전적 범죄가 증가하자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을 제안한 ‘하회탈’ 팀이 1위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 1년간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올해의 생각’으로 서울 오산중학교 학생들(김휘중·이창현·송재환·장동민)의 ‘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 시 선정적 광고 차단’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진대회 수상작과 올해의 생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학생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생각함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회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

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단위: 개, 건)

구분 (총괄)	조사 기관	공정채용 위반 기관	처분 사항			
			소계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32	85	138		12	126
지방공공기관	437	284	580	2	23	555
기타공직유관단체	156	85	149		7	142
합계	825	454	867	2	42	823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EASY(이지) 행정심판 도입과 행정심판 통합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EASY(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제공해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서 작성 등은 일정한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처음 접하는 일반국민은 청구과정에서 다소 낯설고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랜기간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최근 일반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대폭 해소시킨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로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행정심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AI기술을 활용하여 청구인이 청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문장 등을 제공받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서 작성을 쉽게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서면 청구와 온라인 청구 방법이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온라인 청구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법률용어나 서류 양식은 일반국민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엄격한 법률적 서식에 맞게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표현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용어를 통해 문장을 완성하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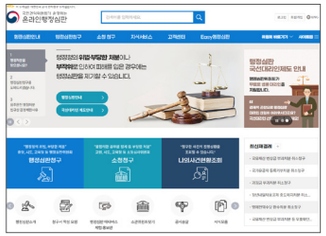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기간 일반국민이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올해 2월 드디어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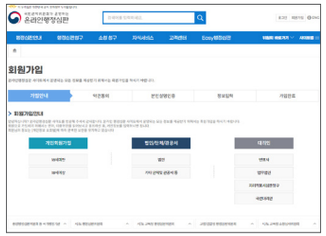
기존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는 직접 법률적 용어가 가득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기입하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청구 관련 맞춤형 재결사례와 문장을 비교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자동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지행정심판'을 이용해 청구인이 피청구인,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연관분석 후 청구 취지, 사건 개요, 청구인 주장 등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모범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으로 완성해 준다.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이지행정심판'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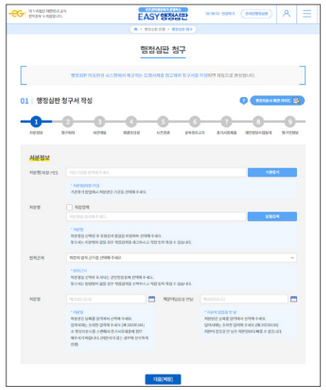
①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클릭

※ 신청부터 심판결과까지 처리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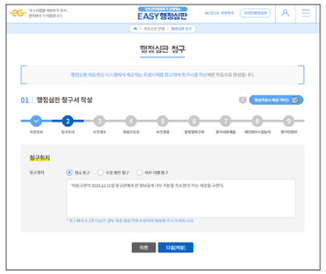
②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우측 상단의 'EASY행정심판' 클릭

③ 'EASY행정심판' 우측 하단의 '청구서 작성' 클릭

④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⑤ '처분정보'(처분청(피청구인), 처분명, 법적근거, 처분일, 처분이었음을 안날) 기재 또는 선택



⑥ '청구취지' 관련 '취소 청구, 무효 확인 청구, 의무 이행 청구' 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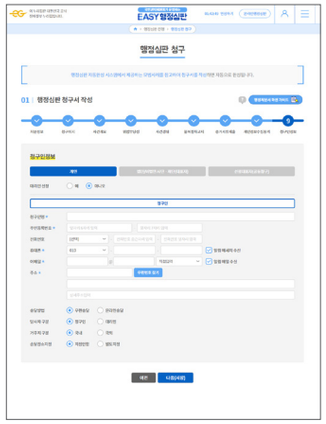
⑦ '사건개요' ⇒ '위법부당성' ⇒ '사건경위' 순으로 유사사례를 선택 ⇒ 적용

⑧ '불복절차고지' 관련 '불복절차고지 유무'는 '고지 받음, 고지 받지 못함' 중 선택하고 '불복절차 고지내용'은 유사사례 중 선택

⑨ '증거서류제출' 관련 제출서류는 유사사례 중 선택하고 파일첨부는 '없음, 온라인제출, 서면제출' 중 선택

⑩ '개인정보수집동의' 선택

※ 동의해야만 청구 가능



⑪ '청구인정보'(청구인 인적사항, 송달방법 등) 기재 또는 선택

⑫ 행정심판 청구서 수정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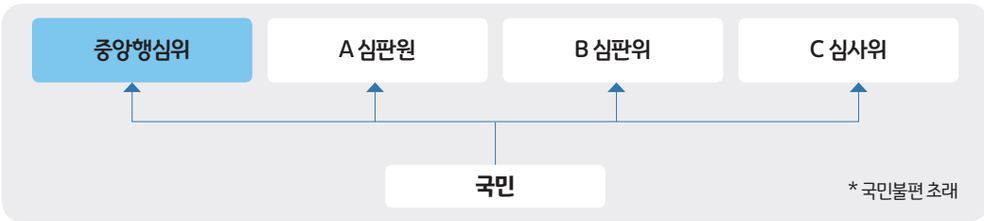
행정심판기관 통합 '원스톱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 중 소관기관을 찾기 어렵고 그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했다.

올해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 2,324명과 국민패널 2,100명 총 4,424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 중 78.8%가 찬성했다. 향후 행정심판 발전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한 행정심판 청구(42.8%),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향상(20.7%),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17.3%)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견수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적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체계도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단계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
단계적 통합대상 분석*

+

국민의견, 자문, 학술대회 등
수렴을 통한 통합방안 도출

* 특별행정심판 기관(66개)별 의사결정구조, 사건처리·인력운용 현황, 특성 등 분석

이지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경과

- ▶ 이지행정심판 구축 관련 용역 계약 체결('22.6.30.)
- ▶ 이지행정심판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22.7.19.)
  - • 민간 전문가(소장자동완성시스템) 자문
- ▶ 재결례 검색기능 고도화, 민간개방 관련 비식별솔루션 구매('22.8.31.)
  - • 개인정보비식별조치 및 개인정보가명/익명 처리(엑소브레인 AI기능 탑재)
- ▶ 이지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완료보고('22.11.29.)
  - • 이지행정심판 서비스(청구서 자동완성, 맞춤형 재결례), 재결례 검색기능 고도화, 재결례 빅데이터 민간개방 등 시스템 구축 완료
- ▶ 2022년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22.12.2.)

이지행정심판 도입기관 현황(51개)

연번	행정심판위원회	
1	중앙행심위	
2	장기요양심판위원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5	방송통신위원회	
6	헌법재판소 사무처	
7	국가인권위원회	
8	시·도 (17개)	서울특별시
9		부산광역시
10		대구광역시
11		인천광역시
12		광주광역시
13		대전광역시
14		울산광역시
15		경기도
16		강원도
17		충청북도

연번	행정심판위원회	
18	시·도 (17개)	충청남도
19		전라북도
20		전라남도
21		경상북도
22		경상남도
23		제주특별자치도
24		세종특별자치시
25	법무부 소속	서울지방교정청
26		대전지방교정청
27		대구지방교정청
28		광주지방교정청
29	대검찰청 소속	서울고등검찰청
30		부산고등검찰청
31		대전고등검찰청
32		대구고등검찰청
33		광주고등검찰청
34		수원고등검찰청

연번	행정심판위원회	
35	시·도 교육청 (17개)	서울특별시교육청
36		부산광역시교육청
37		대구광역시교육청
38		인천광역시교육청
39		광주광역시교육청
40		대전광역시교육청
41		울산광역시교육청
42		경기도교육청
43		강원도교육청
44		충청북도교육청
45		충청남도교육청
46		전라북도교육청
47		전라남도교육청
48		경상북도교육청
49		경상남도교육청
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빅데이터로 확인하는 2023년 11월 국민의 목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https://bigdata.epeople.go.kr/bigdata/bigMainPage.npaid)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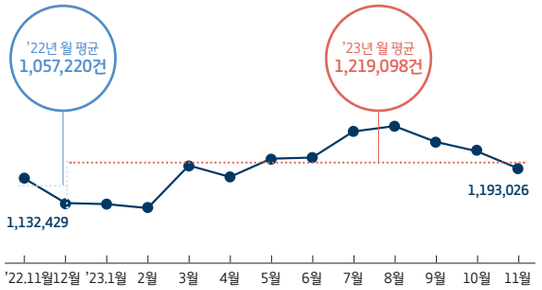
기관별, 성별, 연령별 민원 통계와 급상승하는 민원 키워드 등의 민원 빅데이터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주·월간 민원 동향 등 권익위원회가 분석한 각종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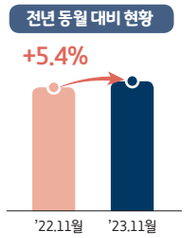
2023년 11월에는 국토부, 식약처, 인천, 강원, 경남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했다.

1 민원 추이

- 2023년 1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193,026건**
- **전월**(1,288,339건) 대비 **7.4% 감소,**
- **전년 동월**(1,132,429건) 대비 **5.4%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3.12.1.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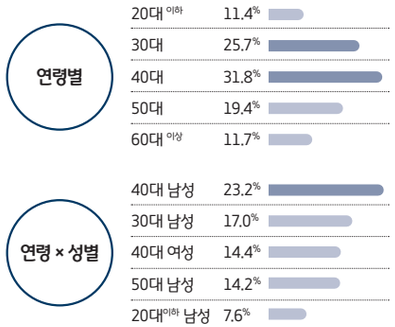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1.8%) 및 **30대**(25.7%), 성별로는 **남성**(69.9%)이 다수를 차지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3.2%), **30대 남성**(17.0%), **50대 남성**(14.4%)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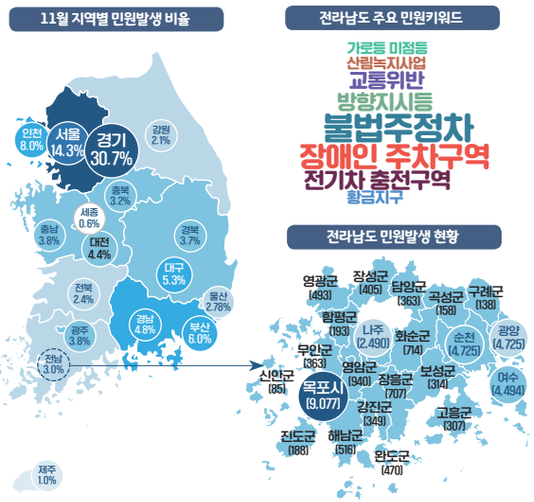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50,852건 대상



3 지역별 현황

- **지역별**로는 **경기가 30.7%**(321,648건)로 가장 많았고 **14.3%**(149,651건), **8.0%**(84,179건), 부산 6.0%(62,708건), 대구 5.3%(54,982건) 등의순 순
-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 등 전라남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4.0%↑)

*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증가



※ 신청지역이 확인된 1,046,233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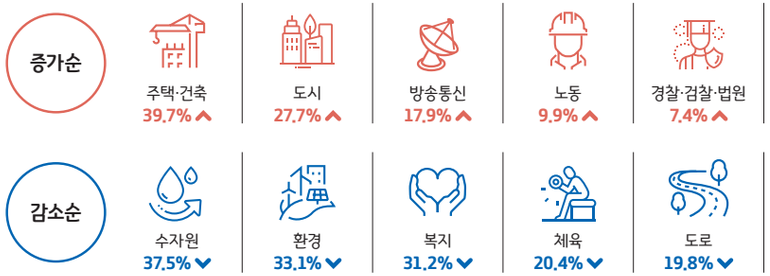
4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64.2%)**가 가장 많고, 도로(6.1%), 행정·안전(5.2%), 주택·건축(3.2%), 환경(2.8%), 경찰·검찰·법원(2.1%)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도로	행정·안전	주택·건축	환경	경찰·검찰·법원	산업·통상	과학기술
64.2%	6.1%	5.2%	3.2%	2.8%	2.1%	1.9%	1.9%
보건	수자원	문화	방송통신	교육	농림축산	노동	재정
1.2%	1.0%	1.0%	0.9%	0.8%	0.7%	0.6%	0.6%
국방	도시	관광	복지	체육	세무	해양수산	외무·통일	우정
0.5%	0.4%	0.4%	0.4%	0.4%	0.3%	0.2%	0.2%	0.2%

증감률 상위 분야 ○○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 등 **주택·건축 분야 증가**



5 주요 민원키워드

1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대책 마련 요구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일반>

순위	키워드
1	**신혼희망타운 입주지연 대책 마련 요구**
2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
3	영통소각장 폐쇄
4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5	성남 터널분수 시공 불량
6	아파트 사고 대책 조속 마련 요구
7	□□시 악취 개선 요구
8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9	◇◇방송 사과 요구
10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책 요구**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2	어린이 보호구역
3	친환경차 충전구역
4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5	교통법규 위반차량
6	제2경인선 추진
7	**고가도로 건설 반대**
8	영흥수목원 버스신설 요구
9	동탄인덕원선 공사 중지 요구
10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

지방자치단체(기초)

11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800,050건으로 전월 대비 12.7%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경기 수원시,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전북 진안군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10월	'23.11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50,541	32,486	**-35.70%**
경기 성남시	20,088	18,497	-7.90%
충북 청주시	19,256	17,091	-11.20%
경기 화성시	16,543	15,519	-6.20%
경기 안산시	15,863	14,503	-8.60%
충남 천안시	18,243	14,480	-20.60%
경남 창원시	15,488	14,330	-7.50%
경기 고양시	17,693	14,016	-20.80%
서울 강서구	14,998	13,954	-7.00%
서울 서초구	13,950	12,327	-11.60%
인천 서구	13,418	12,047	-10.20%
경기 용인시	16,429	12,034	-26.80%
대전 서구	14,337	11,911	-16.90%
서울 송파구	12,020	11,356	-5.50%
경기 평택시	11,616	11,347	-2.30%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10월	'23.11월	증감률
전북 부안군	310	805	**159.70%**
경북 고령군	135	215	**59.30%**
경남 함양군	143	209	46.20%
강원 양구군	135	185	37.00%
경북 예천군	413	562	36.10%
부산 연제구	2,816	3,831	36.00%
전남 구례군	87	118	35.60%
전남 장흥군	138	186	34.80%
강원 삼척시	459	602	31.20%
충북 괴산군	226	294	30.10%
경남 고성군	224	289	29.00%
경남 하동군	170	218	28.20%
전남 영암군	634	785	23.80%
전북 장수군	94	116	23.40%
전남 해남군	327	403	23.20%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신청, 이렇게 하세요!

OX OMR 퀴즈

각 번호 OX OMR을 체크해서
「국민권익」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정답자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OX OMR 퀴즈로 권익 정보도 알고 상품도 얻어가세요.

#1

Q.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 )
X	( )

A. **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Q.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O	( )
X	( )

A. **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Q. 글을 쓸 줄 모르는데 고충민원은 꼭 문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O	( )
X	( )

A. **아닙니다.** 문서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우편 및 국민신문고로도 가능**합니다.

#4

Q. 고충민원은 한국어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O	( )
X	( )

A. **아닙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러시아어 등 **14개 외국어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Q. 고충민원은 반드시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만 권고할 수 있나요?

O	( )
X	( )

A. **아닙니다.** 고충민원은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6

Q. 환경 피해, 안전 문제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나요?

O	( )
X	( )

A. **네.** 5인 이상의 다수인민원(집단민원)의 경우 제3자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해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월의 관심키워드 : 아동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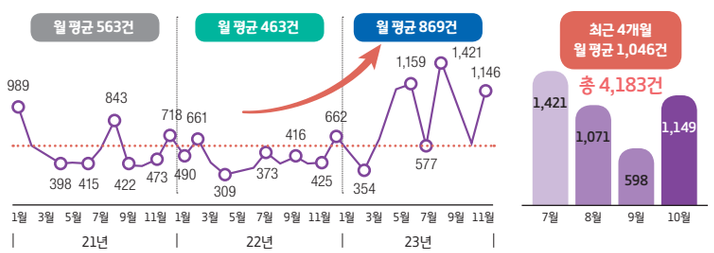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1 민원 추이

› 최근 3년간('21.1월~'23.10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996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관련 민원은 '23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40% 차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관련 민원의 최근 4개월 평균은 1,046건으로, 전체 월 평균 618건 대비 69.3% 높음

최근 3년간('21.1월~'23.10월) 월별 민원 추이



2 신청인·신청지역

› 신청인은 여성(62.8%)이 남성(37.2%)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41.0%), 30대(31.8%), 20대(12.1%), 60대 이상(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3,220건(전체의 63.0%),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1,851건(전체의 56.4%) 대상

› 신청지역은 경기도(32.0%), 서울(20.6%), 인천(7.6%), 부산(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처리기관

› 기관유형별로는 **경찰청**(14.5%), 교육부(12.6%), 복지부(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개선 요청사항

현재	개선 방향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행위자의 기본정보 등록 • 아동 관련 기관은 시스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무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존재 • 혐의만 있어도 당사자 통보 없이 시스템에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 발생 우려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개선** • 등록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체계 구축 • 시스템 등록 시 당사자 통보 및 등록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 마련 필요 • 최종 무혐의 결정 시 등록 삭제 및 무혐의 사실 등록 조치 등 개선 필요 • 아동학대행위자 용어 개선 필요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 교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직위해제' 경우 발생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날 때까지 변호사비 등 모든 책임 사항을 교사 개인이 떠안고,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 신고 대상 교원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 •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기능(기구 등)을 설치해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시점부터 법률상담 및 지원, 심리상담 등 전반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아동학대 판단기준 모호 • 정신적 학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정당한 절차의 교육활동 및 정상적 훈육마저 위축 •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한 정신적 학대에 대한 매뉴얼 부재 • 정상적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선량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당할 수 있음	**학교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정신적 학대에 대한 주요 사례 등, 학교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이 가능한 교원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필요 ※ 현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 중심

5 민원 사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관련 개선 요구

아동학대 신고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왜 시스템에 등록해 놓나요? 처분받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등록되어 있다는 건 무고하게 악성 민원으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범죄자란 말입니까? 게다가 본인에게 그 어떤 안내도 없다니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불법이고 억울한 사람 두 번 죽이는 일 입니다. ('23.9.11.)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대책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교육청 선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교육부가 먼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죽어가고 고통받는 교사들을 살리는 것이지, 나이스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23.6.29.)

아동학대 관련 판단기준 등 메뉴얼 구체화 요구

최근 아동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로 공교육 추락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훈육조차도 아동학대 범죄행위로 규정된다면 도대체 교사는 어떻게 학생을 지도합니까. 현재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 많은 교사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절차의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게 만드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동의 정서적 학대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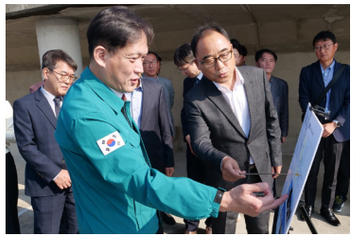
10년간 문 닫혔던 삼척시 '호산항 낚시터' 개방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가 10년 만에 개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호산항 방파제에 조성한 낚시터를 개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원덕읍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삼척에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보상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호산항 외곽 방파제에 안전난간, 접안시설, 화장실, 전망대 등을 갖춘 낚시터를 조성했다. 하지만 2014년 방파제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낚시객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방파제 낚시터는 개방되지 않았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방파제 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원덕읍 이장협의회장과 주민들은 "낚시터를 개방해 삼척지역의 사계절 관광자원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의 낚시객 및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업무협의, 현장방문, 실무협의를 거쳐 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호산항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낚시대회 등 일정 기간 방파제 낚시터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삼척시는 낚시터 개방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5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5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43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Ombudsman)이 참석하는 '제5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취약계층 고충해소, 국민권익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 실현을 위한 업무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굴하고 해결한 집단고충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기관의 운영 방법과 고충민원 해결사례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9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동안 4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와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요구에 따른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6일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요구에 따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홍일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안준호 부패방지국장, 김광석 청탁금지제도과장, 정광식 외식업중앙회장, 신정철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렸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문화를 사라지게 하는 데 청탁금지법이 크게 기여했다"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했다.

외식업중앙회 측 참석자들은 식사비 한도규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식사비가 3만 원으로 유지되는 것은 최저임금이 20년 전 2,275원에서 9,620원으로 320% 상승했고 소비자물가 지수도 지난해 9월과 2003년 9월을 비교하면 61.6% 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식사비 기준을 철폐하거나 청탁금지법상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푸드 세계화 등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음식, 음식 고급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음식점들은 시장에서 싼 재료만을 사다가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 여론의 70% 이상이 청탁금지법이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법학회와 행정심판 통합 학술대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는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11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해 보고, 조세, 인사, 토지 등 부문별 통합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개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에 달한다. 워낙 종류가 많고 기능이 다양하다 보니 국민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정심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해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학술대회 논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정심판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한국공법학회 조소영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적극행정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1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김홍일 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현장 담당자들과 적극행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개선을 요청한 사항 중 지하철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서울 지하철 1호선 급정거로 인한 시민 불편 개선 요구'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통해 처리 경험, 주요 시사점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노인·장애인 등의 우대용카드 사용 확인 방식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장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지하철 급정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군자차량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 적합한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하반기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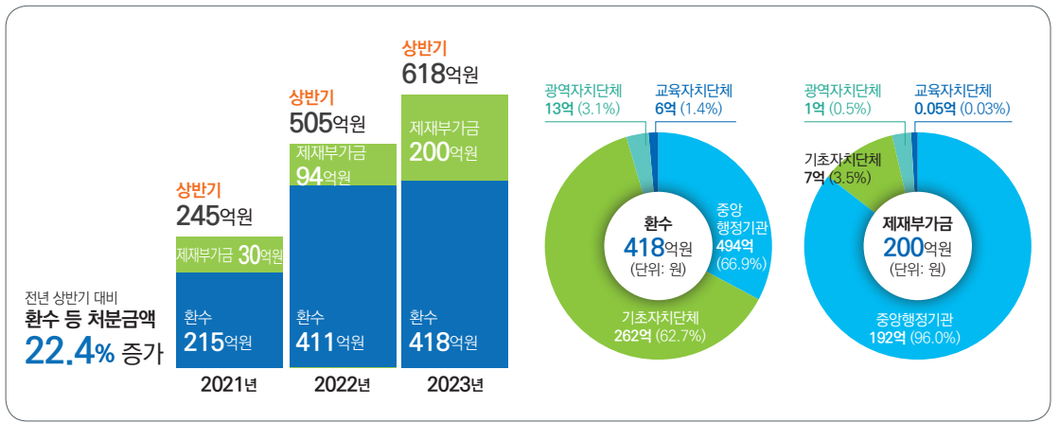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12월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 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342억 원(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 등 가장 많은 제재처분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놓치기 쉬운 권리를 찾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고충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교통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PM)의 대중화 등 보행환경의 변화로 보행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하여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PM 관련 교통사고가 2021년 1,735건으로 1,500% 증가했고, 보행자 안전 관련 신문고 민원 건수는 2019년 83,167건에서 2022년 129,001건 증가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경우 협소한 보도폭,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높은 경계석 및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등으로 보행 불편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2022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삭제되면서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에 휠체어나 킥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이 전동화 및 대형화 추세나 2009년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당시 도입된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인 0.9m는 현재의 보행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현재 보행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보도 공사로 민원이 발생, 장래 보도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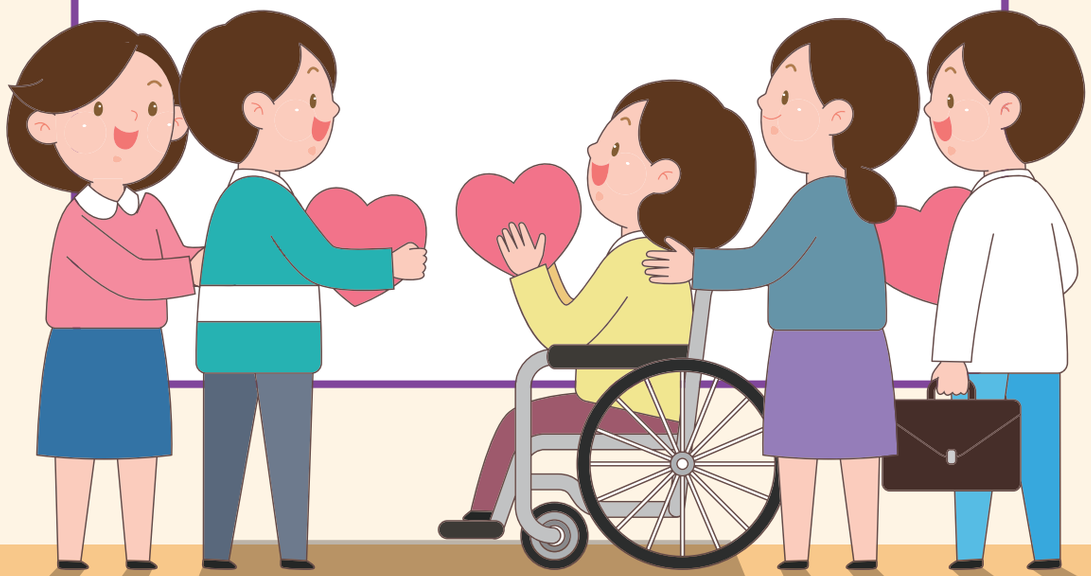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 통행 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민원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선 '장애인 안전시설 기준'이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삭제된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횡단보도 경계석 턱의 낮춤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최소 유효폭 기준을 확대하여 출입구 등 통과 유효폭을 기존의 80㎝를 90㎝로,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기존의 90㎝에서 120㎝로 확대하였다. 또한 민원분석을 통해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 장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장소 등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간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도 최소 유효폭 설치 기준을 일치시켜 교통약자가 전봇대나 가로수 등 시설물에 방해받지 않고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 유효폭을 1.2m에서 1.5m로 확대했다.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를 끊어드립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가난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각종 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이유 분석, 보호 방안 적극 발굴

최근 5년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가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2022년 7월 건보료 체납현황을 보면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64만 8,478세대로 9,073억 4,526만 원의 체납액이 체납된 상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이고 각종 공과금과 월세, 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후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기반하여 권고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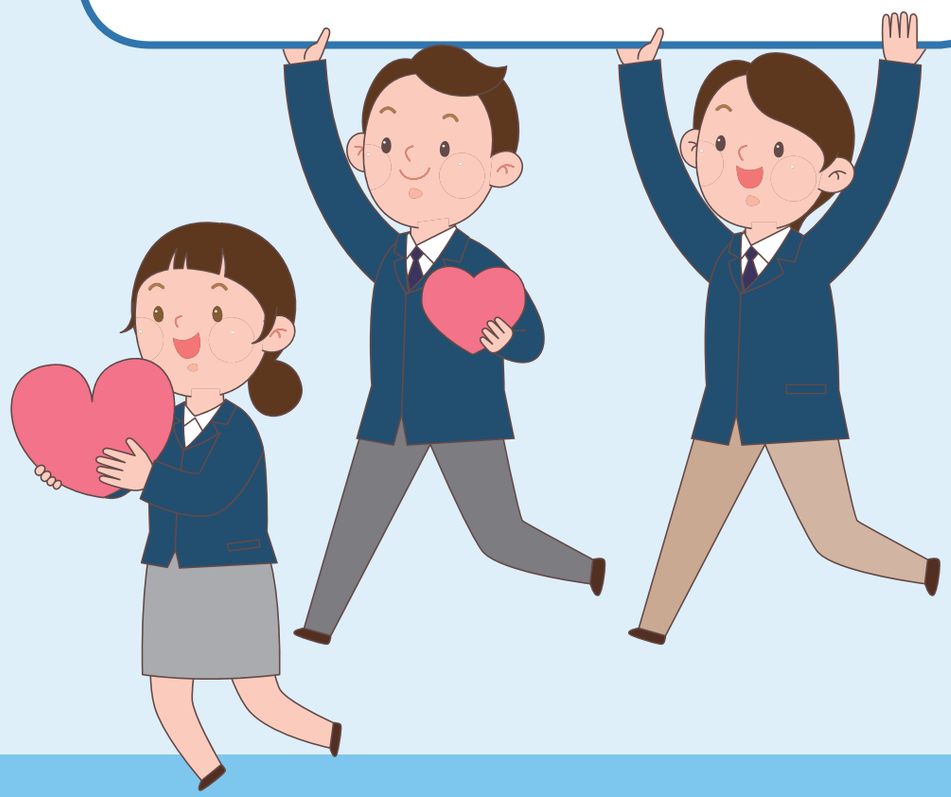
제도개선 주요 내용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부담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②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 저소득 취약계층에 체납 관련 압류처분 통보·안내 의무화
	• 압류 전, 체납자 소명 사실 등 확인 사항 기록관리
③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규정 개선	• (1안)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 (2안)전체 가입자의 체납자에 따른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④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 장기체납자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규정 완화
	• 분할납부 승인취소자의 재승인 기준 완화
⑤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 신설	• 취약계층에 대한 일정 기간 체납처분 유예 근거 규정 명문화
⑥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 대상' 범위 확대	•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자격요건 폐지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연대납부 면제 대상'에 포함
⑦ 수요자 중심의 중요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 중요정보 통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 강화
	• 보험료 산정 관련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 구체적으로 표시, 세대원 정보제공 동의절차 마련
	• 인터넷·모바일앱 등으로 확인방식 다양화

국가전문자격시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년마다 성적 갱신 압박으로 수험생 부담 가중

국가전문자격은 26개 부처에서 총 17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어학 능력을 기본소양으로 인정하여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을 시행하는 자격은 총 25개다. 이 25개 중 영어시험을 TOEIC 등 주요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는 자격은 총 15개다. 그런데 공인어학시험의 시험주관사는 응시자가 취득한 시험성적을 2년간 유효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자격시험 응시의 선행요건인 어학성적이 짧은 기간만 보증됨에 따라 어학성적부터 갱신해야 하는 수험생들 특히, 청년층에게는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한을 확대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고, 청년 수험생을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기한 연장을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확대·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시험 과목으로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경우 어학성적 인정 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과 시험 시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공익어학시험성적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확대될 예정으로 앞으로는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 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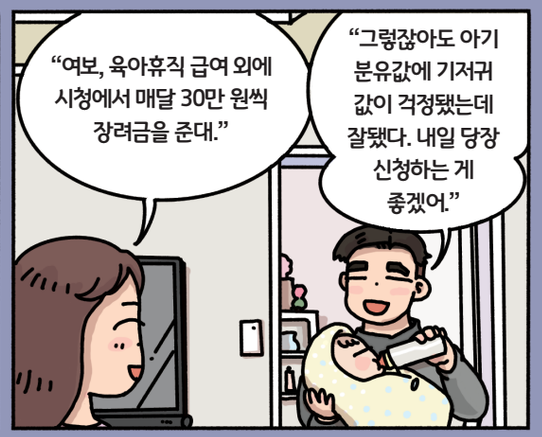
TOEIC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실시 국가전문자격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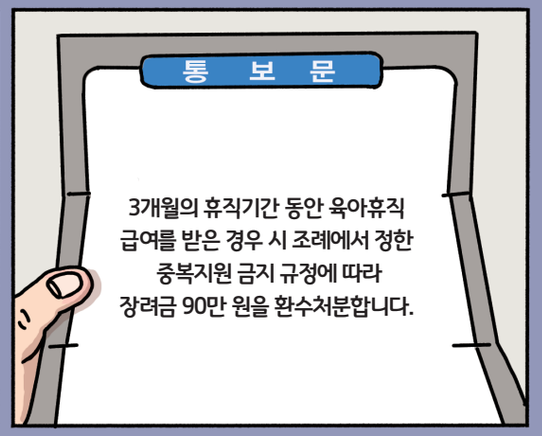
No.	자격명	근거법률	소관부처	시행기관	비고
1	세무사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정
2	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3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입법예고
4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5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6	변리사	변리사법	특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7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8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국토교통부		
9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0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1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2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3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4	경영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15	기술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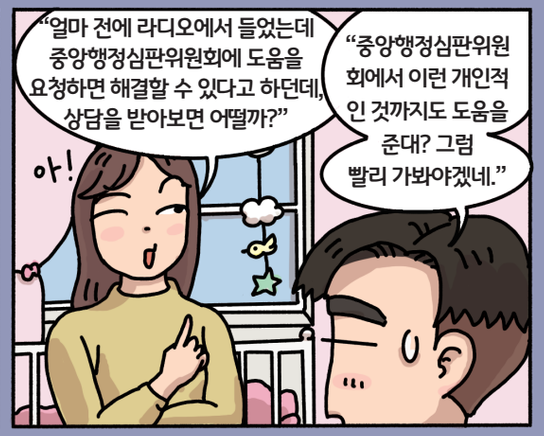
행정심판으로 권익을 구제받으세요!

육아휴직 장려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그림. **디자인에스**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고, 조례에서는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령 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까지 확대해석하여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7분, 25kg 그리고 **안녕(安寧)을 향한 소명 의식**

철원소방서 **박자혁 소방장**

10여 년 전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등장한 소방관의 기도가 많은 시청자를 울린 적이 있다. 당시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소방관이란 직업에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화상 환자 지원을 위한 소방관 달력이 나오며 입소문을 타기도 했고, 얼마 전 방영된 '사이렌:불의 섬'이란 예능에서는 멋진 리더십과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소방관이란 직업의 전문성과 직업의식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 미디어에서 보지 못했던 소방관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차례다.

글. **양샘** 사진. **이용기**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팔방미인

"겨울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히터, 전기 열선, 화목 보일러 같은 겨울용품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매트는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꺼냈을 경우 반드시 훼손 여부와 전원 코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도 접거나 구기면 단선될 수 있으니 선이 접히지 않도록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을 지키는 소방관. 그들에게 겨울철은 특히 비상인 계절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바쁜 시기에 어렵게 만난 박자혁 소방장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신신당부한다.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전기 기구를 연결하지 말 것, 온열 기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주택용 소방시설을 미리 준비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소방관의 업무가 단지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이고, 벌이 활동하는 계절에는 벌집 제거나 신고된 동물의 포획, 잠금장치 개방, 장애물 제거와 안전조치(간판, 나무 제거), 위치확인, 생활끼임, 피해복구지원, 행사장 지원 등 우리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수록 소방관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직업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다재다능하고 만능이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박자혁 소방장은 처음부터 소방관이 목표였을까? 그가 처음부터 소방공무원을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다. 특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덕분에 여러 기술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고 전역 후 인천국제공항 소방대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화재 출동, 구조출동, 대인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당시 그는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게 되어 소방공무원으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소방관의 업무는 진압대원, 구조대원, 운전대원, 구급대원, 행정업무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고충이 있거나 힘들 경우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업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강소방관, 속도방수, 드론대회, 구급전술, 구조전술 등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의 대회를 준비해서 결과가 좋으면 특진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드론, 로프, 스킨스쿠버, 핸들러, 실물화재, 소방차, 구급, 화생방 등 여러 교육을 무료로 받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직업적으로 굉장한 매력입니다."

우리의 안녕을 꿈꾼다

박자혁 소방장은 이 일을 하며 특히 누군가의 가족을 구함으로써 한 생명을, 한 가정을 지켜낸다는 것이 보람 있다고 한다.

"2020년 철원지역 수해 현장에 출동할 당시 센터 펌프차 운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출동이 걸려 팀장님과 저, 후임자 이렇게 3명이 출동했습니다. 보가 터져서 모든 곳이 물에 잠겨 차량으로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라 신속히 소방서에 요청한 고무보트를 직접 운전하여 13명의 구조대상자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여러 현장이 생생하지만 이때가 가장 보람찬 순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경험도, 가슴에 깊게 남는 순간도 많다.

"수난 사고는 신속히 출동해 구조대상자를 빨리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물놀이 중 1명이 깊은 물에 익수해 친구들끼리 찾다가 뒤늦게 신고를 한 현장이었습니다. 수중 수색 시작 3분여 만에 구조대상자를 찾아 CPR을 실시하고 구급대원들이 전문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을 둔 가장으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된 그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구조대상자를 살리지 못한 것만큼 힘든 순간은 같이 생활하던 동료가 순직했을 때다. 특수부대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선배가 소방 임용 후 순직했을 때 박자혁 소방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과 구조 현장에서 처참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소방관들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겪는다. 수많은 소방관이 필연적으로 겪고 있고, 겪게 될 것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주저 없이 가장 앞장서서 달려 나간다.

"지방 소방학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성화 전문 교육을 활성화해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일선에서 팀원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훈련을 진행하지요. 또 각자 관심 분야에 따라 로프구조, 수난구조 등 동호회를 만들어 비번에 훈련을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개인 사비와 휴무를 사용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도 상당수고요."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7분. 유일하게 내 목숨과 안전을 지켜줄 방화복의 무게는 20~25kg. 이것을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착용하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누군가를 구조한다. 그는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 의식을 함양시키고 소방관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방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 전액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그렇게 그에게 안전이란 행복의 시작이다. 안전이 우리 생활의 기저에서 기본이 될 때, 우리 모두의 안녕(安寧)이 지켜진다.

한겨울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흩날리는 경남 통영

TONG YEONG

백석 시인이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나가고 싶은 곳이라 했을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 통영은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비슷해 한국의 나폴리라는 애칭이 생겼다.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소 한산도, 다양한 코스의 정원이 섬 곳곳에 자리 잡은 장사도,
이름도 아름다운 사량도,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비진도 등 가보고 싶은 섬이 많은 통영은
동백꽃이 한창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마치 자신을 봐달라는 아우성을 치듯.

글. **나덕한** 사진. **이용기, 통영시청**

동네 미술관이 바로 여기, 동피랑마을

1년 내내 따뜻한 기후와 오래된 주택과 다양한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통영은 한겨울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방파제가 한겨울 매서운 바람을 막아줘 따뜻한 이곳은 동백꽃이 가장 먼저 핀다는 장사도와 썰물시간에만 드나들 수 있는 등대섬으로 유명한 소매물도,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한산도 등 수많은 섬으로 그득하다.

그중에서도 동피랑마을은 관광객을 손짓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설치한 통제영의 동포루가 있었던 자리에 낙후된 마을을 철거하고 동포루를 복원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7년 시민단체가 '동피랑 색칠하기-전국벽화공모전'을 열었고, 전국의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등 18개 팀이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다. 이렇게 꾸며진 동피랑마을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벽화마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마을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마을은 벽화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변모했다.

마을을 걷다 보면 한눈에 통영을 조망할 수 있고 아름다운 벽화까지 그려져 거리를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온 동네가 미술관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형형색색 화사하게 핀 꽃, 포토존으로 유명한 천사의 날개, 통행로를 따라 길게 그려진 마을 모습, 영화 <오징어게임>에도 나온 추억의 땅따먹기를 보고 있자면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노는 동네 골목 어귀, 어디선가 뭉게뭉게 비누방울이 퍼지고 담벼락에 그려진 천진난만한 소녀의 모습에 잠시 동심의 세계를 추억하게 된다.

낮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비지만, 야간에는 또 다른 광경을 마주할 수 있는데, 해가 저물고 저마다 하나둘씩 가로등이 켜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빛의 도시로 정반대로 옷을 바꿔 입는다.

특히 동피랑마을의 제일 꼭대기인 동포루에서 바라보는 통영은 또 다른 풍광을 선사한다.

해가 저물면 동피랑의 벽화가 미디어아트 속으로, 디피랑

동피랑마을과 달리 해가 저물어야 온전히 벽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디피랑에서는 인공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디피랑은 단순히 예쁜 곳만이 아니다. 통영시는 2년에 한 번씩 공모전을 열어 벽화를 교체하는데 '동피랑과 서피랑에서 사라진 벽화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동피랑과 서피랑에서 사라진 그림이 디피랑에서 미디어아트로 다시 재현되는 스토리텔링을 더한 것이다.

2020년 개장한 디피랑은 2023년 10월 현재 53만여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통영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 시국에도 20만 명이 다녀갔으며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남망산공원 기존 산책로에 구간별로 생동감 있는 미디어 파사드, 홀로그램 등의 디지털 미디어 장치를 설치해 모두 15개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숲속 출구에서 시작해 디피랑산장, 신비폭포, 비밀공방, 메아리 마을, 빛의 오케스트라로 이어지는 길은 서로 다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데다가 동화와 같은 스토리와 캐릭터가 등장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 10월부터 2월까지는 7시부터, 5월부터 8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3월과 4월, 9월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성인 15,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2,000원, 10,000원이다.

그곳에 가고 싶다, 소매물도와 등대섬

통영에서 약 1시간 10분, 거제 저구항에서 약 30분을 배로 이동하면 닿는 소매물도는 통영 8경 중 하나로 2007년 문화관광부에서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을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비록 해안선의 길이가 5.5㎞로 짧지만 해안절벽과 해식동굴을 보고 있자면 경이로운 마음까지 들 정도다. 하지만 이런 소매물도를 대표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 바로 등대섬이다.

파란 바다와 언덕 위의 하얀 등대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리스의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연상하게 해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했다. 그래서인지 소매물도보다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소매물도에서 등대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목개를 건너는 방법뿐인데 바다가 갈라지는 시간대에만 열목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열목개란 등대섬으로 갈 수 있는 80여 미터 길이의 자갈길을 말한다. 하루 평균 한두 번 4~5시간씩 물길이 열리는데 정확한 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물때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지도 모른다.

소매물도 선착장에서 등대섬까지는 약 3km밖에 되지 않지만 2시간 가량을 걸어야 예쁜 등대섬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만만히 봐서는 곤란하다. 등대섬은 능선이나 둘레길이 아닌 거친 파도가 만들어준 선물인 만큼 바위가 많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함께 있어 운동을 해온 사람이 아니면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백나무로 둘러싸인 터널길을 지날 때면 다른 어떤 섬에서도 느낄 수 없는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다. 힘들다고 주저할 걱정은 붙들어매도 좋다. 땀이 적당히 흐를 때면 바닷바람이 휴식을 선사하고 그 너머의 등대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나면 다시 한번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테니.

삼도수군통제영의 세병관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이순신 장군은 거듭된 승리로 1593년 초대 삼도수군통제사에 올랐다. 그리고 수군 기지의 역할을 한 곳이 삼도수군통제영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영을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삼았지만 한산도가 주변의 바다 상황을 살피기 좋았기 때문에 한산도로 통제영을 옮겼다. 칠천량 해전에 부서진 한산도 통제영은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재건하면서 고금도(현재 전남 완도)에 통제영을 설치했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여수의 전라좌수영이 통제영을 겸하다가 두룡포(頭龍浦, 현재 경남 통영)로 옮겼다. 1604년 여섯 번째 통제사인 이경준 통제사가 지금의 위치에 삼도수군통제영을 다시 세웠다. 이후 통제영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통영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당시 통제영 건물 중에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 세병관이다. 국보 제305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병관이란 이름은 두보의 시 '만하세병(挽河洗兵)'에서 차용했다고 한다. 지방관아 건물로는 전라좌수영의 객사로 사용하던 진남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건물인 세병관은 정면 9칸, 측면 5칸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 장대석 기단에 50개의 민흘림기둥으로 벽이나 창호도 없이 매우 웅장하다. 굵직굵직하고 선이 굵어 이순신 장군의 그것과도 닮았다.

Y2K,
MZ세대를 열광시키다

ⓒ 클루리스

엄마의 옷장과 문화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다.
엄마가 입었던 배꼽티가 크롭티로 변신하고
아빠가 손에서 놓지 않던 LP판이 MZ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보물이 된다.
가장 완벽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가
Y2K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글. **이원복**(소설가)

Y2K의 두려움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설렘

Y2K는 연도를 뜻하는 Year과 시간을 의미하는 kilo 1,000이 2와 합쳐져 만들어낸 말로2000년대를 상징하는 합성어이다. Y2K가 한참 입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던 190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세계는 세기말적인 두려움과 새로운 천년에 대한 설렘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1과 2를 구분하지 못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모든 전산 시스템이 멈춰버릴 것이라는 공포가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천년에는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世代)라 불리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장악한 Y2K 시대의 젊은이들은 음울하고 답답한 세기말 분위기에 억눌리지도 낙천적인 웃음만을 짓지도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관심과 자기계발에 몰두하며 새로운 천 년을 준비했다. 어떤 젊은이들은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바른 채 거리를 활보하거나, 배꼽이 훤하게 드러나는 티를 입고 다니며 부모 세대와의 차별을 강조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Y2K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혼자 배낭여행을 떠나며 세계에 대한 견문을 넓혀 나갔다. 어차피 자신의 부모들 역시 미니스커트에 나팔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두드리며 어른들에게 반항했다는 것이 Y2K 세대의 항변이었다. 그들은 한곳에 머물다가 썩어버리는 고인물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만들어 나갔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옷을 갈아 입는 문화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랑하던 Y2K 문화가 본격적으로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영화와 드라마의 힘이었다. 영화와 드라마는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모든 젊은이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 영역이었다. 더구나 SNS와 같은 디지털 환경의 발전이 Y2K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미국판 청춘 드라마 '프렌즈'는 Y2K 세대의 모습을 가장 밝고 경쾌하게 그린 청춘 드라마로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방영된 이 드라마는 제니퍼 애니스톤을 비롯한 여러 배우들이 출연했는데 뉴욕 맨해튼을 배경으로 여섯 명의 친구들이 사랑과 우정을 나눈 드라마이다.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꿈과 미래에 대한 좌절, 우정과 사랑을 코믹하면서도 솔직하게 풀어놓아 지금도 가장 쉽고 빠르게 미국식 영어와 생활 모습을 익힐 수 있는 교재로 꼽힌다.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영화배우 전지현을 대세로 이끌어낸 '엽기적인 그녀'는 2000년 초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정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영화로 꼽힌다. 오죽하면 이 영화를 본 뒤 웃거나 기분 좋아지면 밀레니얼 세대, 이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화를 내면 기성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또한 '세 친구' 역시 드라마 '프렌즈'처럼 절친한 친구 세 명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드라마로 만들었다. '세 친구'의 주인공들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자신들의 일상을 코믹하게 연출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 〈그때, 그 시절 언니들의 하이틴(playlist)〉youtube

'프렌즈'와 '엽기적인 그녀', '세 친구'는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가족 중심의 드라마나 영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주위로부터 최대한 속박 받지 않는 자유롭고 즐거운 내 모습을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갑갑하고 억압적인 사회나 가족 속의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를 그려낸 것이다.

Y2K를 넘어 MZ세대를 사로잡다

패션업계 종사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통하는 속설 중 하나가 지금 마땅한 패션 아이템이 없으면 20년 전 엄마 옷장을 뒤져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20년 전인 1990년대와 2000년 초에 엄마들이 즐겨 입었던 배꼽티와 통바지, 숏패딩의 Y2K 패션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아빠들의 전유물이었던 LP와 옛날 장난감 역시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식지 않는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Y2K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레트로에 기반한 패션 트렌드로 남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MZ세대는 자신의 주장이 가장 강하고, 어른들의 간섭을 싫어하며 스스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세대이다.
여기에 더해서 Y2K 패션이 SNS를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패션을 넘어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갔다. 핸드폰 한 번만 누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유행하거나 재해석된 패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어느 시대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레트로 열풍이 고급스움을 더하면서 더욱 MZ세대의 관심을 끌어냈다. 한때 케케묵은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여겨졌던 LP 역시 MZ세대가 즐겨들었던 CD나 핸드폰 음원과는 전혀 다른 음색을 선사한다. 거기다 고급스런 오디오세트와 구하기 힘든 고가의 LP는 그들을 더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 좋은 아이템이 돼주었다. 지금도 회현동 지하상가에는 마음에 드는 LP판을 구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Y2K 패션이 MZ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는 대중문화의

힘이 컸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중문화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트리트우먼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쎈' 언니들과 날 것의 춤, 엄마들의 옷장에서 금방 꺼낸 신선한 패션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금까지 스트리트 댄스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언저리 문화였다. 여성 댄서 역시 가수들의 화려한 보조 역할에 불과했다. 그러나 '스트리트우먼파이터'는 언니들의 길거리 싸움이란 이름 그대로 이들의 춤판을 MZ세대의 중심문화로 끌고 왔다. 여기에 Y2K 패션의 중심 소재였던 카고 바지와 여름 비니를 유행시키며 레트로 문화의 진수를 보여줬다. 문화와 패션이 새롭게 변화라는 옷을 입고 대중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실제로 패션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이 패션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시대의 변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Y2K 패션에서 유행하던 배꼽티는 크롭티라는 이름으로 재해석돼서 젊음의 아름다움과 함께 사회적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보여준다. 또한 언뜻 군화를 연상시키는 통굽 신발은 남녀의 구별을 최소화한 젠더리스 패션으로 Y2K를 넘어 MZ세대에게도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패션이 아니라 변화를 입고 싶은 Y2K세대와 MZ세대 공동의 욕구를 표현한 것이다.
2000년을 넘어 3000년의 1월 1일을 맞는 신세대들은 어떤 고민과 희망을 갖게 될까? 그들 역시 가슴에 세기말의 불안과 설렘을 안은 채 엄마의 옷장과 아빠의 CD플레이어를 뒤지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꿈꾸지 않을까? Y2K 패션에 열광하는 MZ세대처럼, 엄마의 옷장과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돌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일상에서 시작하는 나눔,
나와 너를 위한 행복이자 권리

한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처음이 만나는 이맘때면
거리는 오색 찬란한 빛이 가득하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몸과 마음에 불어오는 찬 바람조차 막을 여유도,
평범하게 누릴 작은 여유도 없는 이들이 많다.
추운 계절일수록 누군가가 내미는 손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분명 따뜻한 도움이 된다.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0여 년 전 이탈리아 남부에서 시작된 '맡겨놓은 커피(Suspended Coffee)'처럼
내가 마시는 커피만큼 미리 지불해서 이름 모를 가난한 이웃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사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눔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행복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일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1. 헌혈과 헌혈증 기부
"생명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고"

2. 소상공인에게서, 전통시장에서 소비
"지역 경제도 살리고 가계부도 절약하고"

3. 김장 봉사와 김장 나눔
"절대 부족하지 말아야 할 김치 인심"

4. 기부 액세서리 구매
"액세서리가 자립의 기회가 되는 기적"

5. 공유 냉장고 이용
"이웃도 돕고 환경도 살리고"

6. 해비타트, 도배, 청소 봉사
"국가 유공자, 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7. 유기견 이동 봉사
"길거리 생명에게 새 삶의 기회를"

8. 목욕 봉사
"환자, 노인, 장애인의 건강한 삶 지켜주기"

9. 다문화 가정 교육 봉사
"다양성을 포용하는 작은 실천"

10. 맡겨놓은 커피
"이웃에게 선물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11. 헌 옷 기부
"넘치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12. 결식 아동·청소년 도시락 배달 봉사
"누구나 누려야 할 공평한 한 끼 밥상"

깊은 밤
꿀잠 자는 비결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것이 바쁘게 흘러가는 우리나라는 잠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OECD에서는 대한민국을 '학업과 일을 위해 잠을 포기한 사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이유는 7시간보다 적게 자면 비만, 고혈압,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불면증을 극복하고 꿀잠 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글. **이상민** 의학전문기자

겨울에 늘어나는 수면장애 인구

과거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운동을 함께 한다면 건강에 좋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과연 그럴까? 잘 먹기보다는 다이어트에 더 신경 쓰고, 나아가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로 신조어)을 지키기 위해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잘 자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불면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9만8,819명으로 4년 전인 2018년보다 28.5% 늘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는 2021년 기준 68만4560명으로 2017년 56만855명과 비교해 18%나 증가했다.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더하면 이는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30~48% 정도가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고, 일주일에 3회 이상 불면증을 경험하는 사람도 전체의 16~21%에 달한다.

잠은 우리의 신체가 낮에 활동하며 소진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가끔 잠을 못 잔다고 신체와 정신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적정 수면은 7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7시간보다 적게 자면 비만, 고혈압,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학계에서는 개인차를 감안해도 평균 6~8시간을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으로 본다.

잠을 쉽게 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쉽게 우울해지거나 짜증이 나는 등 신체의 리듬이 깨지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진다. 불면증은 잠들기가 어려운 것 이외에 자다가 자주 깨거나, 일찍 깨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겨울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햇빛에 노출이 적어져 수면장애를 겪는 경우가 늘어난다. 게다가 잠자리에서 뒤척이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더해져 다른 계절보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단순히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쉽게 간과했다가는 불면증을 넘어 각종 성인병이나 우울증 등 다른 추가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정보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 :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정하고 이를 규칙적으로 유지한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앉아서 복식호흡을 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해서 다음 날 몸이 힘들 거라고 강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한다.

꿀잠 잘 수 있는 비결

그렇다면 잘 자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낮잠을 자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꾸준하게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삼가는 것이 좋다. 카페인은 섭취 후 5시간 후에야 체내에 그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늦게 커피를 마실수록 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술은 졸리게 만들기는 하지만, 도중에 잘 깨게 하기도 해 취침 전 음주는 좋지 않다.

지나친 스마트폰이나 TV 노출 등도 피하고 낮에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수분 섭취도 필요하고 잠자리에서는 전화 통화, 독서, 스마트폰 시청 등 다른 활동도 건강한 수면에 좋지 않다.

잠들기 전 흥미진진하거나 불쾌한 콘텐츠를 보면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뇌가 깨어 있으면 정신 활동이 활발해져 긴장도가 높게 유지되고, 복잡한 생각이 떠올라 몸과 마음이 이완되기 어렵다.

따라서 잠들기 1, 2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줘야 한다. 단, 자기 전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몸에 체온이 올라 수면에 방해가 된다. 잠이 안온다고 시간을 계속 확인하면 초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는 알람을 맞춘 뒤 베개 밑에 넣어 두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보다 자신의 수면습관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다. 먼저 잠자리에 눕는 시간, 실제 잠드는 시간, 기상 시간 등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침대에 오랜 시간 누워있는 습관은 불면증을 악화시킨다. 만약 오후 11시부터 잠자리에 들지만, 실제로 잠드는 시간이 12시라면, 잠이 오기 전에는 절대 침대에 눕지 않도록 습관을 고쳐야 한다.

만약 만성적으로 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때는 불면증이 아니라 수면장애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면장애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알코올 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신 횟수, 하루 동안의 운동량 등과 같은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면담을 통해 평가해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다른 정신건강에 질병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세한 면담이 필요하다.

건강한 정보

불면증이 심하다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수면제의 양을 늘려서는 안 된다. 수면제를 복용할 때는 최대한 늦게 복용하는 것이 좋고, 최종 기상 시간의 7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수면제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10대 슈퍼푸드, 숙면에 도움 주는 오트밀

오트밀의 재료가 되는 귀리는 섬유질, 탄수화물,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영양소가 풍부한 곡물로, 체중 감량 목표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트밀은 꿀잠을 돕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오트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은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 수면과 진정 효과를 낸다. 평소 오트밀과 우유를 혼합해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꼽히기도 한 오트밀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을 보호하는 레시틴의 생성을 도와주기도 한다. 레시틴은 간에 있는 지방을 제거해 지방간을 예방해주고 간에 쌓인 독소를 해독시키는 작용까지 한다. 탄수화물의 함량도 높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료

오트밀, 그릭 요거트, 우유, 좋아하는 과일

만드는 법

① 그릇에 오트밀 두 스푼을 담는다.
② 그릭 요거트 5스푼을 오트밀 위로 뿌려준다.
③ 우유를 적당히 넣어 골고루 섞어준다.
④ 밀폐용기에 담아 뚜껑을 덮은 채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킨다.
⑤ 좋아하는 과일을 작게 썰어준다. 기호에 맞게 견과류를 뿌려서 먹으면 더욱 좋다.

재료

바나나 1개, 견과류 약간, 양상추 50g, 파프리카 약간,
오트밀 50g, 우유 70㎖,
계절과일(방울토마토 또는 오렌지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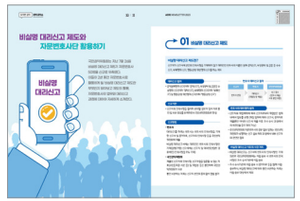
만드는 법

① 양상추와 바나나 1개를 으깨 그릇에 담는다.
② 껍질을 깐 오렌지 1/4개와 파프리카를 적당히 썰어 함께 넣는다.
③ 으깬 바나나, 오트밀, 우유를 함께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간 데워준다. 조금 더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면 두유를 넣어도 좋다.
④ 견과류로 토핑을 올린다.

독자의 소리

2023년 <가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지난 호를 읽고



비대면 대리신고 제도를 전혀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자세하게 신청 절차까지 나와 있어서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조서희(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을 가보면 아직도 무질서한 전선과 시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실에 반가웠습니다.

강주찬(부산광역시 기장군)

'찰나의 순간'의 글과 사진을 보고 이를 안내서 삼아 충남 부여로 가을날 백제역사문화탐방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정숙(서울특별시 관악구)

퀴즈 | Quiz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OX OMR 퀴즈!
엽서에 OX OMR 퀴즈 정답을 체크해서 보내주세요! (20~21P 참고)

※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퀴즈 정답자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

1. 강휘빈(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 김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3. 김종천(경기도 안양시)
4. 오갑선(전라남도 화순군)
5. 이화연(경기도 용인시)
6. 장중기(강원도 태백시)
7. 조한석(경기도 의정부시

지난호 정답

1번	O
2번	O
3번	X
4번	O
5번	X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이메일

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9.3.22~9999.12.31
세종우체국
제40060호

ACRC NEWSLETTER 2023
국민권익 Vol. 79 WINTER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3 0 1 0 2

연락처 :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국민권익>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 권익위 열독왕 퀴즈 (OX OMR)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20~21P를 참고해 주세요!

1.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X)

2.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O X)

3. 글을 쓸 줄 모르는데 고충민원은 꼭 문서로 신청해야 하나요? (O X)

4. 고충민원은 한국어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O X)

5. 고충민원은 반드시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만 권고할 수 있나요? (O X)

6. 환경 피해, 안전 문제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나요? (O X)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01.19-02.01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강릉 | 올림픽파크 내 경기장
평창 | 알펜시아 내 경기장
정선 | 하이원리조트 (1.19.~1.27.까지만 경기운영)
횡성 | 웰리힐리파크 리조트